

Korean Trail 2nd Story

Discover the Ecology

시흥 갯골길

염전의 흔적 남은 방죽을 걷다

'갯골'은 갯가의 고랑을 뜻한다. 바닷물이 육지로 파고 들어 형성된 자그마한 개울이다. 경기도 시흥에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내만 갯골이 있다. 갈매기가 먹이를 찾고 염생식물이 살아가는 갯골 주변에는 터벅터벅 거닐기 좋은 길이 있다. 갯골을 따라 걸으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다.

사진 김주형 기자·글 박상현 기자



“시흥 갯골은 지난 1세기 동안 용도가 수차례 변경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 들어섰고, 이후 간척을 통해 논으로 쓰였다. 지금은 생태환경이 보존된 공원이자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산책로이다.”

생선회를 먹고 해산물을 구입하려는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소래 포구 뒤에는 넓은 염전이 있었다. 1930년대 중반 염전을 조성한 일제는 소금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 해방 후에는 한때 최고의 천일염 생산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점차 채산성이 악화돼 1996년 폐쇄됐다. 그리고 소래염전이 있던 자리는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갯골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갯골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형이다. 대개는 강물이 하구까지 흘러가다 바다에 합류하는데, 갯골은 거꾸로 바닷물이 육지까지 밀려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이다. 구불구불 흐르는 모습을 보면 민물 같지만 실제로는 짠물이고, 조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 게다가 시흥 갯골은 계곡처럼 사행(蛇行)하는 보기 드문 형태를 띠고 있다. 갯골을 따라 난 갯골길은 ‘늪내길’의 일부이다. 삼국시대 시흥 지역의 주도권이 백제에서 고구려로 넘어가면서 ‘영벌노(仍伐奴)’라고 불렀는데, 이 지명은 ‘늪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었다. 즉 ‘뺨어나가는 땅’이라는 의미의 늪내는 시흥의 옛 명칭인 셈이다. 시흥시는 2009년부터 걷기 좋은 길 4개를 만든 뒤 ‘늪내길’이라고 명명했다. 갯골길은 늪내길의 두 번째 코스이다.

갯골길은 시흥시청을 출발해 갯골을 경유하고 방산대교를 건너 돌아오는 16km 경로로 구성되며, 여유 있게 걸으면 5시간 정도 걸린다. 중간 기점은 갯골생태공원이다. 시청에서 생태공원까지는 드넓은 논 사이로 뻗은 오솔길, 생태공원에서 방산대교까지는 갈대밭과 갯벌 사이의 흩길로 경치가 사뭇 대조적이다. 갯골길의 핵심은 ‘갯골’이므로 체력적으로 부담되거나 여유가 없다면, 생태공원에서 길을 나서도 된다.

염전이 사라진 갯벌 생태계의 보고

갯골생태공원은 갯골과 연합 습지가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공간이다. 갯골길을 걷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 둘러볼 만하다. 멸종위기등급 2급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살고, 기러기와 왜가리가 날아들 만큼 환경이 깨끗하다. 또 왕벚나무가 우거져 그들이 드리워진 산책로에는 개망초, 쑥부쟁이, 애기 기린초 같은 들꽃이 피어 있다. 갯골길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은 생태공원 염전 체험장이다. 허름한 목재 소금 창고 앞에 위치한 체험장에서는 소금의 역사와 쓰임새를 알아보고 직접 채취할 수 있다.



갯골생태공원과 갯골길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이다. 습지 정화 작용을 하는 갈대를 비롯해 여러 염생식물, 수수한 들꽃을 볼 수 있다. 참게, 방게, 붉은발농게 등 갑각류와 어류가 풍부해 새들이 모여들고, 꽃의 꿀을 빨아 먹으려는 나비도 많다.



주위에 별다른 지도와 표지판이 없어서 헛갈리는데, 탐방을 계속하려면 철조망이 있는 문을 통과한다.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늪내길 리본이 묶여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길옆은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하늘대는 갈대가 온통 뒤덮고 있다. 갯골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의 없다. 갯고랑과 나란히 평탄한 방죽이 이어진다. 자동차는 다니지 못하고, 오직 도보와 자전거로만 오갈 수 있어 한적하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 뉘싯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낚는 강태공과 몸을

반환점인 방산대교에서 갯골을 바라보면 나무로 만든 닻이 놓여 있다. 아직도 작은 고깃배들이 갯골을 통해 이동한다는 증거다. 이제는 다리를 건너 반대편 독을 통해 돌아간다. 다리 아래 방산펌프장에서 2km 떨어진 포동펌프장까지는 나무에 둘러싸인 길로 갯골의 정취는 느낄 수 없다. 쉴 만한 벤치가 없다는 점도 아쉽다. 포동펌프장부터는 갯골길에서 갯벌 생태계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다. 오른쪽으로는 질푸른 갈대와 산소풀이 군락을 이루고, 과거에 염전이었던 왼쪽으로는 염생식물이 뿌리

“갯골길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은 없다. 그러나 갯가에 무성한 갈대와 모새달이 싱그러움을 뽐낸다.”

수그린 채 열심히 참게를 잡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도시에서는 조우하기 힘든 평화롭고 고즈넉한 정경이다. 생태공원에서 방산대교까지 가는 도중에는 갈림길이 한 번 나타난다. 농경지 가운데 외로이 솟아 있는 섬산으로 향하는 셋길이다. 아까시나무가 무성한 좁은 길을 나아가 섬산을 지나친 뒤 갈대밭길을 걸으면 다시 방죽과 합쳐진다. 이곳에서 약 2km를 더 가면 방산대교인데, 왼쪽으로 창고의 낮은 슬레이트 지붕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내리고 있다.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생장하는 칠면초, 너문재, 통통마디는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특히 '함초'로도 일컬어지는 통통마디는 대지 위의 산호를 연상시킨다. 갯골길 유일의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부흥교에 다다르면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건너편은 생태공원이고, 직진하면 배수갑문과 군자갑문이 있다. 갑문은 해수와 담수의 흐름을 막는 시설로 갯골이 끝나는 지점이다. 이곳에서 시청까지는 다소 지루하므로, 군자갑문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 Y

Information

가는 법

시흥시청으로 향하려면 지하철 1호선 소사역이나 4호선 안산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야 한다. 소사역에서는 63, 63-1번 버스를 이용하고, 안산역에서는 30-7, 61번 버스에 탑승한다. 갯골생태공원은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시흥시청에서 진말초등학교나 동양텍스빌아파트를 거쳐 가는 시내버스를 탄 뒤 2km 남짓 걸어야 한다. 초가을에 열리는 갯골축제 기간에는 시청에서 생태공원까지 순환버스가 운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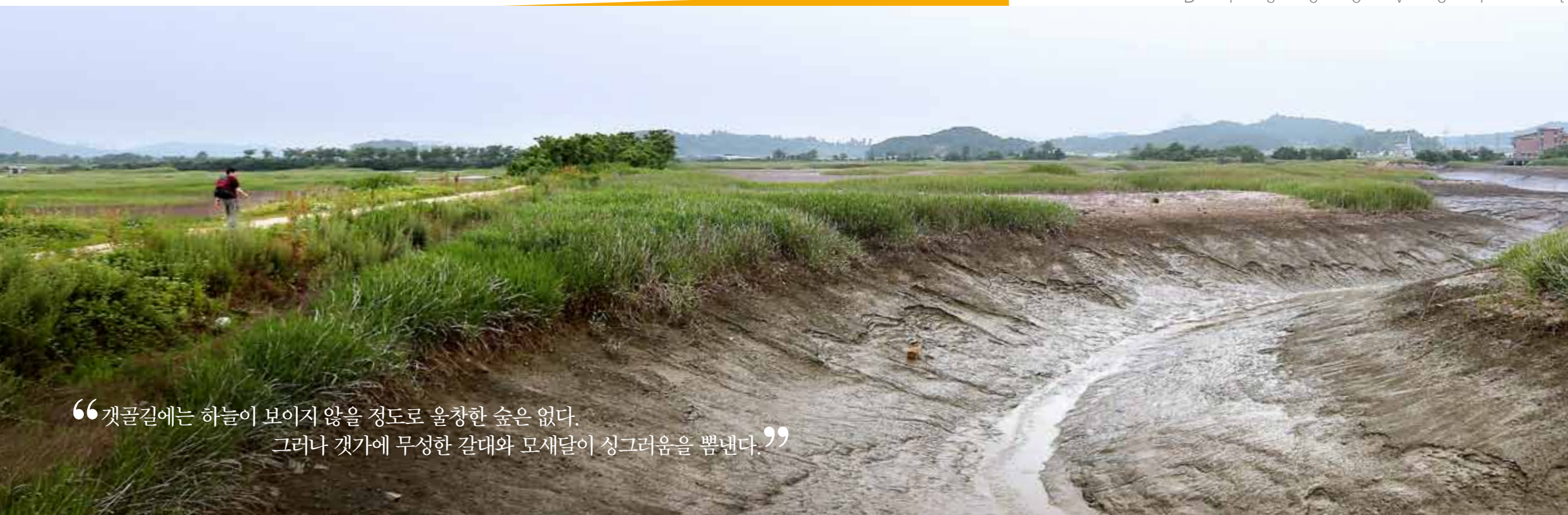
편의시설과 볼거리

갯골길에는 식당, 상점이 없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 시흥시청 인근에서 물과 먹을거리를 구입한다. 화장실은 갯골생태공원 안내센터와 염전 체험장에 있다. 트레킹을 마친 뒤에는 낙조로 유명한 오이도, 높이 15m의 마애불이 있는 소래산, 7월부터 연꽃이 피는 관곡지를 함께 둘러보면 좋다. 식사 장소로는 물왕저수지 주위가 괜찮다.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고, 야경이 아름다워 가족과 연인이 많이 들른다.

늪내길

늪내길에는 갯골길 외에도 숲길, 옛길, 바람길 있다. 수목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숲길은 시흥시청에서 출발해 작고개, 군자봉, 진덕사, 선사유적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경로로 길이는 13km이다. 옛길은 조선시대 문신인 하연의 묘, 소산서원 등 시흥의 문화유산을 거친다. 꼬꼬상회에서 시작하며, 길이는 11km이다. 해넘이와 바다 풍경이 인상적인 바람길은 오이도와 옥구공원을 도는 15km 코스이다.

D i s c o v e r t h e E c o l o g y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안산 도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는 가을부터 철새가 날아오고,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이다. 넓은 꽃밭과 체육시설, 산책로가 있어서 많은 시민이 방문한다. 안산시는 지난 4월 '화랑호수'와 '와스타디움' 사이에 3만7천㎡ 부지의 오토캠핑장을 개장했다. 일반 차량 81대, 카라반(캠핑 트레일러) 4대를 수용할 수 있다. 샤워장, 화장실, 세척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덱(Deck)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용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11시까지이다. 이용료는 일반 차량의 경우 일-목요일은 2만 원, 금-토요일과 공

휴일 전일은 2만5천 원이다. 카라반은 일-목요일 3만 원,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4만 원이다.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말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 사용료 3천 원과 샤워장 이용료 1천 원은 별도로 내야 한다. 주변 관광지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부도, 동주염전 등이 있다. 자동차로 찾아가길 때는 화정1교 사거리에서 단원구청 삼거리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안내판이 보인다. 문의 <http://camp.ansanuc.net>